



딸의 결혼과 그림책

◎ 원은재(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면서 그림책과 함께했던 유년기의 즐거운 시간을 두고두고 생각해 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모든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달에 제 딸이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선물로 무엇을 챙겨줄까 고민하다가 아기 때 썼던 유아 일기와 용알이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그림책 『Coco can't wait』(고미 타로 글, 그림)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을 학교 연구실에서 찾아보았더니 언젠가 학생에게 빌려주었는지 없고, 국내의 인터넷 서점에도 새 책이 없다 하여서 할 수 없이 중고 책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저는 제 딸 수정이를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출산하였습니다. 부부가 유학생활을 하느라 아기에게 많은 책을 읽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만 나면 책을 읽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이가 아기를 낳을 때 고미 타로가 쓰고 그린 『Coco can't wait』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이 책은 한 자리에서도 뒤편에 읽혀 달라고 졸라대어 결국은 하드 커버 표지도 뜯어지고 본문 중에도 너털너털해져서 한국어로 돌아오면서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그림책을 못 읽어 하니 그 책을 버린 것이 두고 두고 후회됩니다.

고미 타로는 주로 1~3세 영아들이 즐겨 읽는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Coco can't wait』는 유아가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캐릭터를 잘 묘사하고 있고 구성도 탄탄하여 영어 그림책의 모범이 되는 책이기도.

주인공 코코는 엄마와 언니 위 보라색 지붕의 집에 살고 있고 코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다른 마을 언덕 위의 오렌지색 지붕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코코는 할머니께 꽃을 선사하려고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갑니다. 그와 같은 시각에 사과를 따던 할머니는 코코가 생각나 사과 바구니를 들고 코코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인타깝게도 도중에 길이 엉켜져서 할머니 댁에 도착한 코코는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가 코코네 집으로 떠나셨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코코 엄마로부터 코코가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번에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코코는 트럭을 얻어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또 길이 엉켜집니다. 마음이 급해진 코코는 이번엔 외발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갑니다. 드디어 길에서 마주친 둘은 나를 듯이 기뻐하며 다음부터는 길 중간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할머니가 들고 온 사과를 먹으면서요.

글과 그림도 단순하고 소박한 그림책이지만 코코와 할머니의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엉켜려 허탕을 치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과 함께 안타깝게워하고 초조해하다가 드디어 둘이 만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말할 수 없이 큰 만족감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수없이 읽어서 다음 장면과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이 장면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기들은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책도 즐깁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출산한 둘째 아이는 동물이 나오는 정보 그림책을 특별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어떻게 잠을 잘까요?』(야보우치 마사유키 글, 그림) 『달님 안녕』(하야시 아키히코 글, 그림)과 같은 책들은 번여 출판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까요?』는 “다람쥐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동글게 말고 잠을 잔데요”, “백쥐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잔데요”와 같이 묻고 대답하는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 두 박자의 그림책이라고도 부르는 책입니다. 이들은 이 책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 동물의 행동을 모방하며 매우 즐거워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던지요.

또한, 다 성장한 우리 아이들에게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소위 우리가 예들 책이라고 여기는 쉬운 책들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림책을 읽고 때로는 어른에 못지않게 섬세하게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레드먼드 브릭스의 『바람이 불 때에는 길이도 길고 전쟁을 주제로 하는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냉전시대의 핵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사실주의 그림책이기도, 등장인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범하고 선량한 부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핵전쟁이 발발하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가 시키는 핵전쟁 대비 매뉴얼대로 하나씩 따

